

오피니언

월/요/광/장

곽수중



아침에 일어나 밤새 미국발 악재 뉴스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게 하루 일과...

레트루즈 체제로의 회귀 가능성처럼 보인다... 필자의 의도는 이러했다. 금값의 상승

세계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은 달러화의 약세를 의미한다. 달러화 약세 정도가 심해지면 달러화의 결제통화...

따른 수급의 문제로 보는 이도 있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니다. 2% 부족한 핵심...

산유국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당연히 유가는...

이러던 차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다. 달러화 약세 추세에 가속 페달을...

이용하면, 그 프리미엄을 잘만 이용하면 자국의 경제성장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저금리를 바탕으로 투자자를 찾던 유동성은 주...

블러이 꺼지기 시작한다. 주택가격이 연일 오르면서 이를 담보로 빚을 내 소비하던...

빚을 갚지 못해 차압까지 당하게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서브프라임 피해...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미국의 자본 투입 성장체제가 쌍둥이 적자 누적을 약...

하지만 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상승 기조를 유지한다. 소비재물가에 고스란히...

한국경제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뚜렷하게 없다. 자원이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자체 예산 10% 감축 지역특성 고려해야

지자체 예산의 10% 절감 방침이 일괄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불요불급한 지방예산의 절감은 바람직하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하지만,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지방예산 10% 감소는 문제가...

오일 쇼크 이후 최대 위기 맞은 한국경제

우리나라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관율은 달러당 1천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4일 원·달러 환율은...

관용이란 의미의 프랑스어 '톨로랑스'(Tolerance)는 어감이 참 좋다. '자신과 다른 견해나 주장을 참아낸...

無等鼓

관용이란 의미의 프랑스어 '톨로랑스'(Tolerance)는 어감이 참 좋다. '자신과 다른 견해나 주장을 참아낸...

무관용 원칙



1990년 뉴욕 지하 철경찰서장이 된 윌리엄 브래튼이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기고

위무량



과거로부터 우리 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천은...

식목일이 따로 없는 나무심기가 가능해졌다. 국토가 푸르게 가꾸어졌기 때문에...

식목일을 국민대통합 축제로

법정공휴일로 제정되기는 1949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 이후 공휴일과 기념일로 바꿈질을 반복하다가 1990년...

을 지내고 민간에서도 성묘를 하며, 불을 금하고 찬밥을 먹는다. 4대 명절의 하나인 '한식(寒食)'이 있다....

항당한 장의 서비스... 계약서 내용 꼼꼼히 살펴야

부모님이 연로하시다. 그래서인지 최근 부모님께서 당신들의 부유에 대비해 장의 절차를 일체형 서비스로 계약했다고 했다.

했다. 여기에 장의업체로부터 받은 것은 '250만원'을 받았다'는 수의 보관증 하나 뿐이었다.

기고

강박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 신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국정 제일의 과제가 바로 경제 살리기다.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는 기업유치를 위해 직원들이 일주일 중에 절반을 수도권에 머물렀다고 한다. 구로와 인천, 반월공단 등 수도권...

경제 살리기와 투자 유치는 계속돼야 한다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켜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촉진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D센터가 집중되어 있어 이들 네트워크를 통한 고가장비와 시설의 공동활용...

종교인들의 학력 위조, 묵과해선 안된다

지난해 종교인들의 학력 위조가 사회 문제화 됐다. 하지만 여전히 학력을 속이거나 세탁한 종교인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속인 체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자신들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을 속이는 행위이다. 종교인들의 학력에 따라 신도 숫자가 달라지고...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